

# 鐵原 孤石亭 新羅碑와 新羅의 鐵原 進出\*

김 진 한 \*\*

1. 머리말
2. 孤石亭 新羅碑의 狀態와 行方
3. 孤石亭 新羅碑의 建立과 新羅의 鐵原 進出
4. 맺음말

## 1. 머리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탄강변에 우뚝 솟아있는 孤石亭은 그 모양이 빼어나 오래전부터 시인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명승지이다. 지금은 주변이 고석정 관광지로 개발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찾는 철원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고석정은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많은 이야기를 갖게 되었으며 그 중에는 신라 진평왕이 세운 古碑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지금은 비가 사라졌지만 비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은 남아 있다. 신라비에 대해서는 고석정을 유람하며 남긴 詩文이나 조선시대 지리지를 통해 존재 사실이 알려져 왔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학술검토는 일제강점기 이마니시 류가 고석정을 답사하며 처음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5일 고석정에 들렀을 때 신종원 선생님으로부터 신라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함께 현장을 살펴본 것을 계기로 쓰게 되었다. 지면을 빌려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으로 하였다.<sup>1)</sup> 김윤우는 지리지 자료를 활용한 문헌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올라가 대략적인 실측까지 하였다.<sup>2)</sup> 이후 비에 대한 검토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라의 북진과 관련한 근거자료로 신라비의 존재를 언급하는<sup>3)</sup> 정도에 그쳤다.

잘 알다시피, 6~7세기 고구려와 신라는 직접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외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그동안 한강유역 일대와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영역 향방과 관련해서는 제법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철원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철원 일대에 신라비가 있었던 사실은 이 시기 중부지역 일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문집에 실린 신라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비의 행방이나 건립 주체, 건립 시기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다. 아울러 신라의 철원지역 진출이 갖는 의미도 살펴보겠다.

## 2. 孤石亭 新羅碑의 狀態와 行方

고석정에 비가 있었다는 기록은 문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고석정에 오르거나 바라보며 읊은 시나 산문 가운데 비의 상태에 대한 언급이 있어 적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석정 신라비에 대한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고려 충숙왕대 國統을 지낸 승려인 無畏가 1288년 답사한 뒤 남긴 「孤石亭記」이다. 무외는 직접 고석정에 올라 신라비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 두었다.

鐵員郡으로부터 남쪽으로 만여 보를 가면 神仙한 구역이 하나 있다. 서로 전해오기를, '孤石亭'이라 한다. 그 정자는 큰 바위가 우뚝 솟아 거의 3백 척에 이르고 둘레는 10여 장이다. 바위의 가장자리를 오르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포복하여 들어가면

1) 今西龍, 1932 「鐵原の名勝地孤石亭」『朝鮮』204.

2) 김윤우, 1990 「紺岳山碑와 鐵原 孤石亭」『경주사학』9.

3) 서영일, 1995 「高句麗 娘臂城考」『사학지』28, 35면.

넓고 평평한 대위에 지붕을 올려놓은 것 같다. 10여 명은 앉을 수 있다. 곁에 琥石이 서 있는데 新羅 眞率王이 놀러와서 남긴 비다. (중략) 무자년 가을 산인 만행 등과 찾아왔다. (후략)<sup>4)</sup>

무외는 비가 옥돌[珉石]로 만들어졌으며 新羅 眞率王이 유람하며 세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외가 신라 진솔왕이 유람하였다는 비문의 내용을 읽은 것인지, 巷間에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해했는지 분명치는 않다. 다만, 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비의 재질 등을 묘사한 내용을 본다면, 직접 확인한 뒤 서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진솔왕’이라고 언급한 것도 신라왕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 눈으로 비문을 판독하고 읽어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도 고석정에 들른 문인들은 풍광에 감탄하며 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성현(成僕, 1439~1504)의 『虛白堂集』에 고석정과 관련된 시가 한 수 있다.

들은 트여 하늘 아래 닿고 길은 반쯤 무성한테  
거울 같이 푸른 못 산모퉁이 곁에 있네  
골짜기는 천 계의 높은 절벽으로 열려 있고  
바위는 홀로 백 쪽의 기이한 봉우리 되었구나  
작은 구멍 벼랑에 뚫려 있고  
옛 비에 글자는 없어져 알아보기 어렵네  
穆王이 놀던 흔적 아득한데  
시냇가에 말 세워두고 한 번 탄식하네<sup>5)</sup>

4) 『東文選』卷68, 孤石亭記 “自鐵員郡南行萬餘步 有一神仙之區 相傳曰孤石亭焉 其亭也 巨巖斗起僅三百尺 周十餘丈 緣巖而上 有一穴 蒲伏而入 如屋宇層臺 可坐十許人 傍有珉石立焉 乃新羅真率王來遊 而所留碑也 却出穴登絕頂 盤陼如圓壇 荒蘚衣以鋪茵 青松環而張傘 又有大川 自巽而來 破崖轉石 如衆樂俱作 至巖下 潛爲淵 臨視之 競戰可畏 如有神物居焉 其水溢奔西走一舍許 觸坤而南流 前後皆巖巒壁立 楓楠松櫟 雜生其上 若夫神妙清爽 奇形異狀 雖工文善畫者 殆難得其彷彿矣 予越戊子秋 與山人萬行等尋之 始見而神爽 終陟而慮絕 咳焉坐忘 不覺日之夕矣 於是 發晚遊之嘆 有再訪之期 既記其狀 又以詩志之”

5) 『虛白堂集』虛白堂詩集 卷11, 詩 孤石亭 “野闊天低路半蕪 碧潭如鏡傍仙隅 峽開絕壁千重峻石作奇峯百尺孤 小穴緣崖穿壁古碑沒字已模糊 穆王轍跡巡遊遠 立馬溪頭付一吁”

성현은 1483년 11월 25일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sup>6)</sup> 이듬해인 1484년 10월 26일 洪貴達이 강원도관찰사로 임명받고 있어<sup>7)</sup> 1년 남짓 강원도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虛白堂集』에 실린 시들은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孤石亭」 다음 네 번째 실린 시가 관찰사로 부임하는 홍귀달과 만난 뒤 쓴 것이란 점, 「孤石亭」 바로 앞 시인 「原城書事」 6首가 강원감영에서 관찰사로 직무를 보던 때의 일을 쓴 것으로 마지막 6수에서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孤石亭」 시는 1484년 가을 어느 날 고석정에 들러 쓴 것으로 짐작된다. 성현은 비문과 관련해 글자는 마멸되어 읽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옥(趙昱, 1498~1557)이 ‘砥平 土最美洞에 은거한 1546년~1547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遜村錄」에도<sup>8)</sup> 古碑에 대한 언급이 있다.

나그네 마음 가을빛에 물들고  
막다른 길에 슬픔이 쉬 일어나네  
하물며 망국의 땅 지나니  
차마 서리시를 짚을 텐가  
고석엔 이끼 낀 비 있고  
풍천에 석회 바른 성가퀴 기울었네  
지난날 돌아보니 흥하고 망하였으니  
땅을 딛고 깊이 생각하네<sup>9)</sup>

조옥은 어느 가을날 철원을 지나다가 고석정에 들러 ‘이끼 낀 비’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구사맹(具思孟, 1531~1604)의 『八谷集』에도 고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6) 『成宗實錄』 卷160, 成宗 14年 11月 甲寅 “甲寅 江原道觀察使成倪 黃海道觀察使朴繼姓辭”

7) 『成宗實錄』 卷160, 成宗 15年 10月 庚辰.

8) 한국고전종합DB 『龍門集』 해제를 참고하였다.

9) 『龍門集』 卷4, 遜村錄 過古東州二首 “客意兼秋色 窮途易作悲 況經亡國地 忍詠黍離詩 孤石  
苔碑在 楓川粉堞欹 廢興看往古 有土合深思”

기이한 경치 말로 다 이르기 어렵네  
 높이 솟아 옷을 엮은 듯 신명이 보호하고  
 바위에 난 구멍은 훽하여 쪼아서 지붕을 이룬 듯  
 솔바람 소리에 간 하늘 비를 머금었네  
앞선 왕조의 옛 자취 와전히 사라지지 않아  
흐릿하게 겨우 신라왕을 분별하겠네  
즐겁게 놀다 碑를 새겼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어루만지며 서성인들 소용이 없네

「孤石의 碑를 어루만지다」 孤石亭은 府의 남쪽 30리에 있다. 新羅 眞平王이 일찍이 노닐었으며 비가 있다.<sup>10)</sup>

구사맹은 1589년 1월 1일 강원도관찰사를 제수받았다.<sup>11)</sup> 그의 뒤를 이어 1589년에 尹希吉, 鄭昌衍, 柳永吉 등이 관찰사로 임명되고 있다. 또한 「孤石摩碑」 앞에 쓰인 「楓川訪古」라는 시 구절에서, “풀이 무성하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이 시는 여름이나 초가을쯤 쓰였을 것이다. 바로 이어진 「孤石摩碑」도 이 무렵 쓰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 시는 1589년 여름부터 초가을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쓴 「孤石摩碑」에 보면, 구사맹은 직접 비를 어루만져 보았고 글자가 흐릿하지만 신라왕임은 분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성현은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100여 년 뒤 구사맹은 몇 글자를 판독해 내었던 것이다. 여기서 구사맹은 신라 진평왕이 놀러왔다가 남긴 비로 이해하고 있다. 비 자체에서 신라왕을 겨우 분별할 정도로 흐릿하다고 한만큼 비문전체를 판독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진평왕이 일찍이 노닐었다’고 기록한 것은 구사맹이 들은 바를 적어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라왕이라고 분별한 것이 비문에 쓰인 진평왕을 읽어내고 판단한 것인지, 비문에 신라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지 모호한 점은 있다. 다만,

10) 『八谷集』卷2, 七言古詩 東州十詠次願菴韻 “異境難將凡舌喻 亭亭束玉神明護 岩穴豁琢磨  
成屋 松濤淅瀝晴含雨 前朝舊迹未全亡 糜糊僅辨新羅王 盤遊勒碑何足尚 摩挲不用重彷徨”  
右孤石摩碑 孤石亭在府南三十里 新羅眞平王嘗遊幸 有碑

11) 『宣祖修正實錄』卷23, 宣祖 22年 正月 己酉。

구사맹이 ‘신라왕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 사실은 비문 자체에 ‘新羅眞平王’이라고 하는 글자를 읽어내었을 가능성이 크다. 구사맹 이후에도 비에 대한 언급은 계속된다. 유사규(柳思規, 1534~1607)는 『桑榆集』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孤石은 천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맑은 뜻은 한 줄기로 흐르네  
 신령스런 자취 굴속에 그윽한데  
기이한 자취 비머리에 끊어졌네  
 소나무 늙어 학의 둑지되었고  
 모래는 밝아 갈매기와 친해졌네  
 훌훌 세속의 걱정 떨쳐버리고  
 이제야 단구가 있음을 믿겠네<sup>12)</sup>

유사규가 고석정에 올랐을 때 비는 깨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 그가 이 시를 지은 시점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1589년 이후임은 분명하다. 비 상태에 대해서는 윤근수(尹根壽, 1537~1616)의 『月汀集』에도 언급되어 있다. 윤근수는 1598년 철원부사가 되어 임지로 떠나는 조카 윤방에게 붙인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먼 곳에서 송옥의 슬픔 어찌 견디랴  
 정자는 황량하고 외로운 바위에 풀만 무성하네  
 벼랑 끝의 늙은 소나무는 기이한 모습 많고  
산꼭대기의 부서진 비석은 옛 터임을 알겠네  
 강물이 못 가운데 이르면 밝은 거울처럼 깨끗하고  
 하늘 멀리 둘러싼 봉우리에 자욱한 구름 움직이네  
 다시 유람할 기약을 혔되어 저버리고 말았으니  
 늙도록 승경을 찾을 길 없는 내 신세를 탄식하네<sup>13)</sup>

시에서는 그 이전에 비가 이미 부서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윤근수가 언제 고

12) 『桑榆集』 上, 詩 登孤石亭 “孤石千年勝 清潭一帶流 灵蹟幽竇裡 奇跡斷碑頭 松老宜巢鶴  
沙明可狎 鷗飄然醒俗慮 方信有丹丘”

13) 『月汀集』 卷3, 七言律詩 次湖陰北寢亭韻寄家姪 昕. 번역은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석정에 올라 이를 확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598년 이전임은 명확하다. 앞서 구사맹의 시에서 온전했던 비가 훼손되었던 것이다. 이후 비의 상태에 대한 언급은 이시성(李時省, 1598~1668)의 『駢峰集』에서도 확인된다.

孤石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매달려 올라가  
내려다보니 龍湫의 뜻이 그러한가 싶구나  
옛날 어떤 사람이 이 굴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비는 깨지고 글자는 없어 어느 해인지 알 수가 없네<sup>14)</sup>

같은 문집 권1에 실린 「新曆歎」이 1620년 23세의 나이에 지은 시로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시는 그 이후 쓰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시성은 깨지고 마멸된 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시성의 확인을 마지막으로 비의 행방은 묘연해진다. 허적(許橘, 1563~1640)이 금강산을 유람하며 지내던 1623~1626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孤石亭」이라는 시에서 비가 사라져 버리고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긴 넛물 산을 둘러 넘실대며 흐르고  
큰 바위 우뚝 솟고 물은 길게 흐르네  
내 그 위에 올라 한가롭게 서성이니  
황홀함이 학이나 난새가 나는 듯 하네  
붉은 벼랑 푸른 절벽 그 곁을 둘렀으며  
그 밑 못 속엔 용이 분명 숨어 있을 듯  
온온한 굴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 솟아오르네  
물러나 우뚝 솟은 산을 굽어보니 아득한데  
만약 떨어지면 다시 찾아 노닐겠구나  
기이하고 특이한 모양 한이 없고  
이 곳에서 노닐던 어느 시대 왕  
글자 새긴 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구나  
태봉과 고려가 교체되어 일어나고

14) 『駢峰集』 卷1, 七言絕句 孤石亭 “躋攀孤石最高顛 俯瞰龍湫意爽然 古有何人藏此窟 斷碑無字不知年”

시내 산기슭에는 城隍이 있고  
 사람의 일 대신 사례함이 어찌 늘 있겠는가  
 산천을 유람하며 응하는 데 다함이 없고  
 구부려 오늘과 어제의 정 안으로 상하는데  
 내게 달의 순한 기운 다시 돌아오고  
 붉은 꽃 비취색 잎사귀 물결에 비치네  
 다른 세상에 그윽하여 잊어버리고  
 풀어져 노래부르는데 어찌 능히 자세할까  
 긴 휘파람 불며 푸른 소나무에 의지하네<sup>15)</sup>

이시성의 시와 비교해서 본다면 이시성은 허적보다 앞서 고석정에 있던 비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는 1620~1626년 사이 어느 무렵에 사라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인들은 비가 사라진 사실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은 『謙齋集』에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孤石亭의 頭窟은  
 新羅王이 노닐던 곳이라  
옛 비는 지금 없고  
 연못의 물만 유유히 푸르다<sup>16)</sup>

조태억은 1709년 7월 5일 철원부사의 관직을 제수받았으며<sup>17)</sup> 8월 2일 하직하였다. 그리고 1710년 2월 27일 조정에서 이조참의를 제수하여 다시 불러들였다.<sup>18)</sup> 철원부사로 재임중에 고석정에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성해옹(成海應, 1760~1839)의 『研經齋全集』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15) 『水色集』 卷5, 詩 孤石亭 “長溪繞山流泱泱 巨石屹立出水長 我陟其上聊相羊 恍若鶴飛而鸞翔 丹崖翠壁環其傍 其底潭心龍必藏 隱隱有窟穿其腸 我欲入之心魂揚 却立峴崿俯蒼茫 若墜復稽仍徊徨 奇 形異相狀無方 此地盤遊何代王 有碑記刻今則亡 泰封高麗迭興昌 緣溪長麓有城隍 人事代謝豈有常 山川遊覽應無央 俯仰今古情內傷 我來復值月純陽 紅葩翠葉映波光 異境幽趣却相忘 縱欲歌之安能詳 長嘯獨倚松樹蒼”

16) 『謙齋集』 卷5, 詩 右孤石亭 “孤石亭頭窟 新羅王所遊 古碑今不在 潭水碧悠悠”

17) 『承政院日記』 24冊 肅宗 35年 7月 5일 甲戌 “吏批 以南致熏爲都承旨 趙泰億爲鐵原府使 申混爲禮曹佐郎 洪道達單付成均博士 李增祿單付學錄”

18) 『承政院日記』 24冊 肅宗 36年 2月 27일 壬戌 “備邊司 吏曹參議趙泰億”

“鐵原의 경내로 들어가면 砌川이 되는데 두 기슭에 돌이 가로놓여 섬돌이 층계처럼 쌓인 듯 가지런하다는 데서 이름하였다. 또한 孤石亭이 물가에 있어 정자는 절벽에 임하였는데 올라가면 작은 굴이 있다. 갈라진 바위를 건너뛰어 臺에 이르면 평평하여 앉을 만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新羅 眞平王의 비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사라져버렸다.”<sup>19)</sup>

성해옹은 경기도 포천 출신이며, 포천은 철원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1815년에는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에 몰두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고석정과 관련된 내용도 이후에 관련 사실들을 수집하면서 정리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집을 중심으로 고석정 신라비의 상태와 행방을 살펴본 결과, 1589년 무렵까지 글자는 마멸되고 이끼가 끼어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비는 온전한 상태로 전해져왔다. 그러나 이후 부서져 버렸고 그나마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던 비도 1620~1626년의 어느 해에 그 행방마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이 오늘날까지 口傳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 3. 孤石亭 新羅碑의 建立과 新羅의 鐵原 進出

이 장에서는 문집에 보이는 내용을 토대로 고석정 신라비의 건립 주체와 건립 시기 등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신라의 철원 진출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앞서 본 문집이나 『新增東國輿地勝覽』<sup>20)</sup> · 『輿地圖書』<sup>21)</sup> · 『大東地志』<sup>22)</sup> 등 각종 지지자료들은 진평왕이 놀러왔다가 남긴 비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정약용(1762~1836)은 『與猶堂全書』에서 무외의 「孤石亭記」를 인용하며 이때 등장한 신라 진솔왕을 진흥, 진지, 진평왕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하였다.<sup>23)</sup> 이후 前問恭作

19) 『研經齋全集』外集 卷44, 地理類 東水經 漢江 “入鐵原境爲砌川 有石橫兩岸 如階級之整故名 又爲孤石亭專潭 亭臨絕壁緣而上 有小穴由之 歷巖罅而至臺 平鋪可坐 世傳新羅眞平王有碑 今亡矣”

2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 鐵原都護府 樓亭 孤石亭.

21) 『輿地圖書』上, 江原道 鐵原 樓亭 孤石亭.

22) 『大東地志』卷15, 鐵原 城池.

은 진흥왕이 세운 비로 황초령비가 그것일 거라고 단정하였다.<sup>24)</sup> 今西龍은 진평왕의 來遊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眞興王일 가능성성이 많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sup>25)</sup> 이에 대해 김윤우는 『東國輿地勝覽』에 眞平王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俗傳에도 신라 진평왕이 노닐었다고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외가 말한 ‘眞率王’은 ‘眞平王’의 잘못으로 보았다.<sup>26)</sup>

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를 기록에서 무외는 진솔왕이 남긴 비로 이해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무외 이전부터 진평왕으로 알려져 오고 있었는데 무외가 진솔왕으로 이해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무외에게 진솔왕으로 이해되던 신라왕이 조선시대에는 진평왕이 놀다가 남긴 비로 전해져 왔던 점은 주목된다. 이는 그 사이 진평왕으로 俗傳되어왔거나 그렇게 판독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보여주는 기록이 무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나 이 지역을 유람하며 남긴 구사맹의 시이다. 시에서 구사맹은 글자가 모호하지만 新羅王임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바로 뒤이어 진평왕이 노닐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진솔왕은 진평왕일 가능성이 높다.<sup>27)</sup>

23) 『與猶堂全書』第6集 地理集 第8卷 大東水經 濱水3 “砌水 又南逕鐵原府東南 府本句麗鐵圓郡 新羅爲鐵城郡 高麗初爲東州 後爲鐵原 我朝因之 屬于江原道也 水至其府東南三十里始稱砌川 兩岸有 石壁如階砌 故名 其石壁上 有孤石亭 俯瞰砌水 亭傍 有古城 高麗僧無畏孤石亭記云 自鐵原郡南行 萬餘步 有一神仙之區 相傳曰孤石亭焉 其亭也巨巖斗起 僅三百尺 周十餘丈 緣巖而上 有一穴蒲伏而入 如屋宇層臺 可坐十餘人 傍有珉石立焉 乃新羅眞率王來游而所留碑也 案新羅眞率王 是眞興眞智眞 平中之一也 却出穴 登絕頂 盤陀如圓壇 荒蘇衣以鋪茵 青松環而張傘”

24) 前間恭作, 1931 「眞興碑につきて」 『東洋學報』 19-2, 100-101면.

25) 今西龍, 1932 앞의 논문(今西龍, 1970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575면에 재수록).

26) 김윤우, 1990 앞의 논문, 49면.

27) 한편, 무외가 언급한 眞率王이 眞平王이 아니라 眞興王과 글자가 유사한 점, 진흥왕의 순행경로상(마운령~북한산) 철원은 중간에 위치하므로 진흥왕이 철원을 경유하였다는 사실, 진평왕이 한강 유역을 순수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고석정비는 진흥왕이 북한산비를 세웠던 해에 건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603년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시 진평왕이 직접 출정하였다는 기사나 『삼국사기』 김후직전에서 진평왕이 사냥을 좋아하여 산과 들을 누빈다는 묘사는 진평왕의 순수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북한산비의 재질이 북한산 주변이 아니라 경주

이런 사실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묘사된 진평왕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나 일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고석정이 있는 철원은 예로부터 사냥터로 이용되었던 곳이다.<sup>28)</sup> 이와 관련해 『三國史記』 金后稷傳에 따르면, ‘진평왕이 사냥을 매우 좋아하여 종일 토록 산과 들을 누비며 사냥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에 보다 못한 김후직이 지극히 諫言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후직이 유언으로 자신의 뼈를 사냥 다니는 길가에 묻으라고 하여 아들들이 그대로 따랐으며 훗날 진평왕이 이를 알고 고쳤다’고 전한다.<sup>29)</sup>

『三國遺事』에서는 ‘진평대왕의 키가 11척으로 內帝釋宮에 행차할 때 돌계단을 밟았는데 세 돌이 함께 부서졌다. 왕이 좌우에 일러 이 돌을 옮기지 말고 후세에 보여라’ 하였다고 전한다.<sup>30)</sup> 진평왕과 관련한 두 가지 일화는 그가 豪放한 기질을 타고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603년 북한산성을 공격한 고구려군에 맞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데서도 알 수 있다.<sup>31)</sup>

『三國史記』에서도 진평왕에 대해 “왕이 날 때부터 뛰어난 바탕[奇相]에 신체가 장대하고 뜻이 굳고 식견이 밝다”고<sup>32)</sup> 평가하였다. 이렇듯, 사냥을 좋아하며

지역에 분포한 화강암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병일·최희수, 2006 「北漢山 新羅 眞興王 巡狩碑 복제에 대한 연구」『문화사학』 26, 9면)되었으며, ‘북한산비·황초령비·마운령비 모두 경주에서 돌을 채취한 것’(조범환, 2013 「眞興王巡狩碑에 대한 몇 가지 疑問과 새로 운 理解」『신라사학보』 27, 134면)으로 보인다. 그런데 無畏는 「孤石亭記」에서 고석정비를 옥돌[珉石]로 된 비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비의 재질이 다르다. 그리고 순수비 세 점은 산 정상이나 고갯마루에 있었지만 고석정비는 한탄강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세 비는 크기도 모양도 비슷한’(정현숙, 2010 「6세기 신라금석문의 서풍」『목간과 문자』 6, 45면) 반면, 고석정비가 서 있었던 자리에 대한 대략적인 실측 결과(김윤우, 1990 위의 논문, 52면)를 비교해 보면 크기가 다르다. 이상에서 볼 때, 고석정비를 진흥왕의 순수비로 보기기는 어렵다.

28) 고려시대 충숙왕, 조선시대 세종대까지 고석정 일원에서 사냥을 했다는 기사를 종종 확인해 볼 수 있다. 충숙왕이 1319년 8월 25일 철원에서 사냥하고 고석정에 이르러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高麗史』 卷34, 忠肅王 6年 8月 “丁未 幸壽康宮 遂畋于鐵原 至孤石亭 留詩一絕”

29) 『三國史記』 卷45, 金后稷.

30)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天賜玉帶.

3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平王 25年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3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平王 �即位.

산과 들을 누비는 왕이라면 철원까지 왔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진평왕이 철원 일대에 왔다가 비를 세웠던 시기를 추정해보자. 신라가 철원을 비롯한 중부지역 일대로 진출한 것은 北進과정의 산물로 진흥왕대 이후 삼국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진흥왕은 551년 백제와 연합하여 한수 상류를 점령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하류마저 차지하였다. 이때 신라가 점령한 竹嶺以外 高峴 以內 고구려 10군에<sup>33)</sup> 대해 학계에서는 대체로 강원도 태백산맥 서쪽 대부분과 경기도 이천, 안성, 여주, 양평, 연천, 가평 일대와 충청북도 괴산, 진천, 제천, 단양 일대에서 찾고 있다.<sup>34)</sup>

진흥왕은 553년 백제 동북변경지역을 차지하여 新州를 설치하였으며 555년에는 북한산을 순행하며 강역을 정하고 지나는 州郡마다 사면 및 1년간 세금을 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진흥왕의 통치행위는 새롭게 점령한 지역에 대한 민심수습책이었다. 이어 『三國史記』에서는 556년 오늘날 안변 일대에 比列忽州를, 557년에는 신주를 폐지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고 나온다.<sup>35)</sup> 이 무렵 신라는 안변으로부터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내려와 한강 하류까지 대략적인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다가 568년 10월에는 州治 및 停군단의 주둔지를 북한산(한강 이북의 서울)에서 南川으로 이치하였고, 비열흘에 위치한 정군단의 주둔지를 達忽(강원도 고성군)로 옮겼다. 여기서 신라가 비열흘에서 달흘로 조정한 사실이<sup>36)</sup> 의문스럽

3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真興王 12年: 『三國史記』 卷44, 列傳 居柒夫.

34) 10군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167-172면 참고.

35) 中古期 신라에는 上州와 下州, 新州가 존재하였고, 동해안지역에는 州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신라본기」에 전하는 중고기 신라의 州置廢와 관련한 기록은 상주, 하주, 신주의 州治 및 軍營인 停의 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해안지역은 단지 停의 이동을 알려주는 사실로 이해하고 있다(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주의 성격 변화와 군주」 『역사와 현실』 40: 2015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고기 주의 성격 변화와 군주」 『역사학보』 226, 6-10면).

36) 今西龍은 왕의 순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함흥일대는 고구려로 넘어갔지만 비열흘의 軍備는 철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하였다(1921 「新羅真興王巡狩管境碑考」 『考古學雜誌』 12-1: 이부오 · 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2008 『이마니시 류의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356-357면). 노용필은 고구려와 漢人들의 반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1996 『新

다. 그 해, 함경남도 일대까지 순수하며 자신의 영역임을 자랑스레 여기던 진홍왕이 도리어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라의 함경남도 진출이 내실있는 영유화를 담보하지 않은 채 방어선만 길어져 군사적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무렵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이천시를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대체로 광주산맥 이남에서 신라의 방어선이 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철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일대는 고구려와 신라간 점이지 대로 영역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진평왕이 철원 일대로 다시 진출하여 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단순히 ‘노닐던’ 것 이상으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진평왕대는 진홍왕대 이상으로 신라의 대고구려, 대백제전투가 자주 벌어졌으며 전력상 우위를 확보하지도 못하였다. 사실 왕이 왕경을 떠나 신라의 최북단 접경지대로 간 까닭은 고구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평왕의 철원 일대 순행 시점은 고구려와 군사적 대립이 커지고 경계가 늘어나는 때일 것이다.

먼저 590년대 신라가 고구려와 아단성전투를 벌인 사실이 눈에 띈다. 이때 출정한 온달은 ‘신라가 우리나라 漢北의 땅을 郡縣으로 삼았으며 鷄立峴과 竹嶺已西의 땅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맹세하였다.<sup>37)</sup> 아단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sup>38)</sup> 있지만 대체로 단양군 영춘으로 비정된다. 온달의 진군로는 평양에서 출발한다면 상원-수안-신계-삭녕-철원-춘천-홍천-원주-제천-단양노선으로 짐작된다.<sup>39)</sup>

羅眞興王巡狩碑研究, 일조각, 62-64면). 강봉룡은 고구려는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탈취해 간 영토를 모두 공인해주고 신라는 최전방 군사기지를 후방으로 옮겨 더 진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고 하였다(2004 「순수비에 담긴 진홍왕의 꿈과 야망」『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43-246면). 장창은은 함흥 일대가 처한 지리적 수세의 불리함을 주목하였다(2014 앞의 책, 238-239면).

37) 『三國史記』卷45, 列傳5 溫達.

38) 아단성의 위치를 현재의 아차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윤성호, 2017 「『三國史記』溫達傳所載阿旦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한국사학보』 66; 전상우, 2018 「6세기 후반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화와 신라의 아단성 공격」『한국고대사연구』 89)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史料에서 온달은 계립현과 죽령 이서의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이도학도 이 점을 강조하였다(2014 「阿旦城 所在地와 溫達城 初築國에 관한 論議」『한국고대사탐구』 18, 152-153면)]. 그렇다면, 출정 목표에 맞게 계립현과 죽령 이서 일대로 진군하였을 것이며 그 진군로상에서 아단성의 위치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고구려군이 신라의 내륙 깊숙이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데는 중부 내륙 일대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이 확고하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이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이어지는 데다 인구도 적은 곳이다.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領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지배력은 이완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고구려가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을 회복하였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었다.<sup>40)</sup>

고구려가 단양 일대를 다시 장악한다면 신라의 對中교통로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의 지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시 대중교통로로 두 가지 노선이 상정된다. 하나는 ‘단양·충주에서 여주-이천-수원-남양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sup>41)</sup> 이에 대해 광주산맥이 이천-수원 통로를 지나고 있어 서울이나 안성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주-보은-청주-진천-직산-평택-안중-당항성(남양만)에 이르는 이른바 추풍령로가 대중교통로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기’도<sup>42)</sup> 한다. 하지만 이 노선도 직산 일대가 백제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sup>43)</sup> 따라서 두 가지 노선은 상황에 따라 병행하여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sup>44)</sup>

신라의 對陳遣使도 578년을 끝으로 陳이 멸망하는 589년까지 보이지 않는다.

39)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신계-연천-춘천으로 추정하였으나(김진한, 2010『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47면) 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천 대신 철원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서영일은 철원-춘천-홍천-원주-단양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지적하였다(2001「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고구려연구』 11, 35면).

40) 서영일은 590년대에 失地를 회복하여 남한강유역 일대를 중심으로 신라와 대치한 것(2001 위의 논문, 34-36면)으로 보았다. 장창은은 일시적이나마 단양 이북 영서 내륙 지역에 대해 죽령로 위주의 군사적 거점지배를 하였을 것(2014 앞의 책, 293면)으로 보았다.

41) 신형식, 1990『統一新羅史研究』, 삼지원, 262-263면. 권덕영은 경주-선산-상주-함창-계령-충주-여주-당은포 혹은 육로로 갈 경우, 충주-죽산-당은포로 추정하였다(1997『古代韓中外交通史』, 일조각, 190-193면).

42) 서영일, 1999『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28면.

43) 전덕재, 2013『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역사와 담론』 65, 160면.

44) 최근에는 한강유역에 대한 신라의 단계적 접유과정을 검토하며 6세기 중엽 이후에는 안산만을 출발기점으로 보는 연구(선봉조, 2017『7세기 濟·麗同盟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56-62면)도 나왔다.

이 사이 백제나 고구려의 견사는 각각 두 차례, 한 차례씩 보인다. 또한 對北朝 遣使도 고구려와 백제가 590년까지 줄곧 이어지는데 신라의 견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 내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찾을 경우, 대중교통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579년 백제가 웅현성과 송술성을 쌓아 신라 산산성, 마지현성, 내리서성의 길을 막았다는 기사가 주의를 끈다. 이를 여러 성 가운데 웅현성은 충북 보은 일대로 추정되며 내리서성은 신라의 서변 선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추풍령로를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5)</sup>

그렇다면, 또 다른 대중교통로인 단양-충주를 지나 남한강을 따라 나아가는 길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더욱이 온달이 단양까지 진군할 수 있었던 사실은 진군로를 따라 영서 내륙의 일부 지역을 고구려가 회복하였음을 시사해준다.<sup>46)</sup> 그 시기는 신라의 방어선이 조정되는 568년 이후부터 아단성전투를 벌이는 590년대 이전의 어느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라는 아단성전투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이어 594년 처음으로 신라의 對隋使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사신과 승려들의 對隋入朝가 꾸준히 이어졌다. 또한 신라와 고구려의 군사충돌도 한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된다. 603년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하자, 진평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다. 604년에는 남천주를 폐지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sup>47)</sup> 이어 같은 해 남천정을 없애고 한산정을 두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갔다.

608년 2월에는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경계를 침입하여 8천 명을 사로잡아 갔으며 4월에는 신라 우명산성을 차지하였다.<sup>48)</sup> 이 정도의 인원을 노획하려면 여러 지역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벌이거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진평왕의 한강 하류일대에 대한 대

45) 서영일, 1999 앞의 책, 124-125면.

46) 일시적이나마 죽령로 위주의 군사적 거점지배를 하였을 것으로 본 장창은의 견해에 동의 한다.

47)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平王 26年.

48)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真平王 30年.

책이 마련되고 있었던 만큼 북한산주를 중심으로 한 한강 하류 지역의 주요 거점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우명산성전투도 이러한 2월 대공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sup>49)</sup>

608년 진평왕은 고구려가 자주 강역을 침입하자, 원광을 시켜 乞師表를 짓게 하였으며 611년에는 請兵使를 파견하였다.<sup>50)</sup> 이와 관련해 양국의 교전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다. 644년 고구려에 온 당나라 사신 相里玄獎이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자, 연개소문은 “지난날 隋室이 침입하였을 때, 신라가 우리 땅 500리를 빼앗아 성읍을 모두 차지하였으며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그치지 않겠다”고 하였다.<sup>51)</sup> 고구려·수전쟁 때 신라가 고구려 땅을 차지한 사건에 대해 진흥왕대의 경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다.<sup>52)</sup>

그러나 최근 들어 사료를 궁정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신라가 고구려 땅 500리를 차지한 시기에 대해 598년부터 614년으로 보거나<sup>53)</sup> 612년에서 614년 사이로 이해하기도<sup>54)</sup> 한다. 아단성전투 이후, 대수외교가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사실은 신라가 고구려군의 내륙진출을 저지하여 대중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연개소문이 말한 “隋室의 침입” 시기는 598년 제1차 고구려·수전쟁부터 제2차 고구려·수전쟁이 벌어지는 611년부터 614년까지의 결과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신라가 차지한 “고구려 500리의 땅”은 551년 빼앗겼던 한수 상류 유역과 앞서 고구려가 일시 회복하였던 일부 영서 내륙 일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49) 우명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강원도 안면 일대(정구복 외, 2012 『역주 삼국사기』 3,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544면 각주38), 춘천 일대(서영일, 2001 앞의 논문, 37-38면; 장창은, 2014 앞의 책, 307면), 인제군 남면 소양호 부근 牛鳴山에 있던 성(김윤우, 1987 「娘臂城과 娘子谷城考」 『사학지』 21, 260면)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북한산주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교전양상을 고려하여 춘천일대로 보는 설을 따른다.

5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真平王 33年.

51)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寶藏王 上 3年.

52) 津田左右吉, 1964 「眞興王征服地域考」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84면.

53) 서영일, 2001, 앞의 논문, 36면.

54) 최호원, 2012 「고구려 영양왕대의 신라공격과 국내정치」 『한국사연구』 157, 25-27면; 장창은, 2014 앞의 책, 309-310면.

그렇다면, 진평왕이 철원 일대를 순행하고 비를 세운 시점도 고구려와 수가相爭하던 598년부터 614년의 어느 무렵이라고 추정해본다.<sup>55)</sup> 철원 일대는 고구려군의 신라 방면 내륙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평강-세포-삼방-원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진출로상에 있기도 하다. 또한 한성에서 평양으로 진군하는 노선의 일부이기도 하였다.<sup>56)</sup> 그런 점에서 임진강 일대를 중심으로 구축된 주방어선만큼은 아니지만 보조 방어선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후 신라와 고구려 사이 전투는 확인되지 않지만, 625년 11월 당나라에 간 신라 사신이 고구려의 침입을 호소하는<sup>57)</sup> 것으로 보아 기록에 보이지 않는 소소한 공방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629년 8월 김유신이 고구려娘臂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sup>58)</sup> 낭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덕원,<sup>59)</sup> 청원,<sup>60)</sup> 파주시 철중성,<sup>61)</sup> 포천 반월산성설이<sup>62)</sup> 있으며 현재 반월산성으로 비정한 견해가 유력한 편이다. 그리고 낭비성이 반월산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신라가 낭비성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철원 일대로 진출하여 비를 건립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63)</sup>

55) 고구려가 608년 우명산성을 차지하여 춘천일대로 다시 진출하면서 그 이북 지역도 고구려의 점유아래 놓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라가隋室의 침입 때 고구려 500리의 땅을 차지하였다고 한만큼 곧 수복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우명산성전투를 놓고 보면 고석정비의 건립시기도 608년 이전과 이후로 좀 더 좁혀볼 수 있다. 다만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598년에서 614년 사이로 판단해 보았다.

56) 667년 당나라 李勣이 漢城停에 도착한 문무왕에게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했던 江深이 거쳤던 곳이 舊철원읍 일대인 阿珍含城으로 海谷道의 노선상에 있었다(『三國史記』卷6, 新羅本紀 文武王 7年).

57)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平王 47年.

58)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 榮留王 12年 “秋八月 新羅將軍金庾信 來侵東邊 破娘臂城”;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平王 51年.

59) 池內宏, 1960 『滿鮮史研究』上世 第2册, 吉川弘文館, 27-28면.

60) 이원근, 1976 「百濟 娘臂城考」『사학지』10, 7면.

61) 김윤우, 1987 앞의 논문, 275-284면.

62) 서영일, 1995 앞의 논문, 35면; 박종서, 2010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국학연구』17, 140-143면.

63) 서영일, 1995 위의 논문, 35면; 박종서, 2010 위의 논문, 143면; 서영교, 2011 「高句麗 倭連和와 阿旦城 전투」『군사』81, 35-36면; 장창은, 2014 앞의 책, 321면.

그런데 문헌상으로 볼 때, 낭비성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池內宏의 지적처럼 ‘김 유신이 고구려의 東邊을 침입하였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三國史記』에 기록된 東邊의 용례나<sup>64)</sup> 동쪽의 용례를<sup>65)</sup> 살펴보면 말 그대로 동쪽의 국경이나 동쪽인 것이다. 당시 동해안 지역은 신라가 달흘을 중심으로 이전에 점령한 적이 있었던 비열흘 근방까지 영유화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sup>66)</sup> 신라군이 동쪽 변경을 침입하여 낭비성을 공격한 만큼 과주나 포천 일대는 고구려의 동변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낭비성은 동해안의 비열흘 일대로부터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내려오는 선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 낭비성전투에서 고구려인들이 성을 나와 진을 벌리는데 그 軍勢가 매우 성하였으며, 신라군에 의해 5천여 명이 전사하였다고 한 만큼 성의 규모도 컸다. 군세나 성의 중요성으로 보았을 때, 추가령구조곡 선상에서 낭비성이 비정될 만한 곳은 원산시와 안변군 일대 정도이다. 즉, 안변에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철원으로 내려올 때까지 산악지대와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만큼 나머지 지역에서는 진을 칠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sup>67)</sup>

안변과 원산 일대에는 여러 성이 있다. 이 가운데 안변군 옥리에 자리한 학성 산성은 고구려가 처음으로 쌓았으며 평강, 고성방향에서 쳐들어오는 적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이다. 성의 둘레는 2,107m이며 고구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와류가 출토되었다.<sup>68)</sup> 원산에는 古井泉城이 있었다고 전하며,<sup>69)</sup> 마식령장성의 일부 성들도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낭비성이 어느 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慈悲麻立干 2年.

65)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太祖大王 4年, 46年.

66) 『三國遺事』 卷5, 融天師彗星歌 眞平王代조에는 세 화랑의 무리가 楓岳에 놀러가려다가 혜성이 나타나자, 잠시 그 행차를 과했다가 혜성이 사라진 뒤, 진평왕이 낭도들을 풍악으로 놀려 보냈다는 일화가 실려 있다. 진평왕대 풍악, 오늘날 금강산을 포함한 내륙 일부와 동해안 일대를 신라가 영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67) 김정호는 『大東地志』에서 三防은 分水嶺에 있으면서 동북의 안변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捷路이기에 세 곳에 防을 세워 준비하였으며 關을 세워 지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도 그 세력을 뚫지 못한다고 하였다(『大東地志』 卷15, 江原道 平康 城池).

68) 남일룡, 1994 「학성산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7-10면.

6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9, 咸鏡道 德源都護府 古跡.

낭비성전투에서 신라는 대장군 용춘과 서현, 부장군 김유신 등을 투입하였으며 김유신의 선봉으로 승세를 타고 성을 함락시켰다. 이로써 신라는 다시 안변과 원산 일대로 진출함으로써 진평왕대 말에는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방어선을 재구축하였다고 생각한다.

진평왕대 철원으로 진출하였지만 삼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라가 이 일대를 확고하게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통일기로 접어들면서 삼국간 항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통일이전까지 신라와 고구려 사이 국경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37년 牛首州를 설치하고 軍主를 두었다.<sup>70)</sup> 638년 10월에는 고구려가 신라 北邊에 자리한 칠중성을 침입하였다.<sup>71)</sup> 칠중성은 오늘날 파주시 일대로 임진강을 경계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39년에는 何瑟羅州를 北小京으로 삼았다.<sup>72)</sup> 642년 김춘추가 請兵을 위해 고구려에 갔다가 억류되자, 김유신은 선덕왕의 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고구려의 남쪽 국경으로 들어갔다.<sup>73)</sup> 신라는 647년 2월에 수승을 우두주 군주로 삼았다.<sup>74)</sup> 대체로 신라의 동북면은 강릉을 배후기지로 하고 고성을 전방거점으로 삼았으며 춘천을 중부내륙의 중심거점으로 하였다. 신라의 서북면은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한 국경선이 그려진다.

655년 고구려가 백제·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33성을 빼앗았다. 이때의 33성은 대부분 철령 이남 원주 이북의 북한강 유역으로 보이므로<sup>75)</sup> 655년 이후 철원 일대는 고구려 점령아래 놓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675년 봄, 아달성전투가 있었다. 이때 아달성은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으로 비정된다.<sup>76)</sup> 『조선향토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70) 『三國史記』卷35, 雜志 嶲州.

7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善德王 7年.

72)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善德王 8年.

73)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善德王 11年.

74)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眞德王 元年.

75) 池內宏, 1960 앞의 책, 31-36면. 이때 33성을 죽령과 계립령 이북의 신라 땅으로 보고 있다(정구복 외, 2012 앞의 책, 176면 각주161).

76) 정구복 외, 위의 책, 801-802면. 池內宏은 안변 일대의 한 성으로 비정하였다(1960 위의

철원읍의 소재지 마을이다. 이때 소나는 백제가 멸망한 뒤, 한주도독 도유공의 추천을 받아 아달성으로 옮겨 북쪽 변경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sup>77)</sup> 도유공이 668년 사망하였으므로 소나는 668년 이전에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달성은 668년 이전에 고구려와 신라가 국경을 접한 최전방이었다.

또한 675년 말갈이 赤木城을 공격하여 현령 탈기가 전사한 기록이 있다. 이때 적목성은 회양군 난곡면 현리로 비정되고 있다.<sup>78)</sup> 이 두 성은 원산-안변-덕원방면으로부터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회양-평강-철원방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지에 있었다. 신라는 당과의 전쟁기간에 철원 일대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를 방어선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고고학 자료를 통한 철원 일대의 향방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책, 481면).

77) 『三國史記』 卷47, 列傳 素那.

78) 池內宏, 1960 위의 책, 480면.

79) 유적현황에 대한 정리는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강원대학교박물관, 1986 『한계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북한문화유적발굴개보』;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6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육군사관학교 · 철원군, 2000 『鐵原城山城 地表調查 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강원도 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1 『江原道 華川郡 · 春川市 軍事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1 『江原道 華川郡 · 春川市 軍事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2 『江原道 楊口郡 · 麟蹄郡 軍事遺蹟 地表調查報告書』; 강원문화재연구소 · 춘천시, 2005 『春川 凤儀山城 發掘調查 報告書』; 문화재청 · 강원도 철원군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 철원군』;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철원문화원, 2006 『철원의 성곽과 봉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고구려의 성곽』, 진인진; 량익용, 1958 「안변 룽성의 고분발굴 보고」, 『문화유산』 1958-4; 량익용, 1962 「룡천군 구읍리 어은골 신라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2-4; 백기하, 1965 「안변군 룽성리에서 나온 인골에 대하여」, 『고고민

〈표 1〉 강원도 북부일대 유적현황<sup>79)</sup>

지역	유적명	주소	현황(돌래)	시대
강원도	동주산성	철원읍 중리 산2번지	591m	삼국시대 이후
	성산성	김화읍 읍내리 성재산	982m	통일신라시대 이전
	할미산성	동송읍 장흥4리	약 250m	통일신라시대
	어음성	갈말읍 문혜리	약 400m	삼국시대
	토성리산성	갈말읍 토성리	약 400m	삼한시대
	성모루토성	근남면 양지리	약 190m	
	거성	거성리	약 900m	고구려 성
	만경산성		약 450m	고구려 성
	삭녕산성	삭녕리	약 570m	고구려 성
	노기산성		약 400m	고구려 성
이천군	양지리고분	근남면 양지리 산265	석실고분	삼국/통일신라시대
	심동리산성		약 600m	고구려 성
화천군	성산고성			고구려 성
	생산성	화천읍 하리 산1번지	696m	통일신라시대 이전
춘천시	봉의산성	소양로 1가 산1-1번지	1,284m	삼국시대(?)
	우두산성	우두동 168번지	826m	늦어도 삼국시대
인제군	한계산성	북면 한계3리 산1-1	약 5km	
안변군	학성산성	옥리	2,107m	고구려 성
	서곡산성	룡성리 성재산	약 500m	신라 성
	룡성리고분	룡성리		신라시대
고성군	온정리고성	온정리		
	봉화리고분	봉화리		삼국시대
문천군	교성리토성	교성리		신라시대 성
통천군	구읍리			
	어은골 신라무덤	구읍리 어은골	횡혈식석실	삼국시대

북한 소속의 철원군에 소재한 고구려성인 거성, 만경산성, 삭녕산성, 노기산성은 임진강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내 임진강유역의 고구려 성들이 강안과 접하거나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연안내륙에 분포하고 있는<sup>80)</sup> 양상과 공

속』 1965-4; 리정기, 1967 「청해 토성 및 교성리 토성 답사보고」 『고고민속』 1967-4; 백련행, 1967 「봉황리 무덤떼의 조사보고」 『고고민속』 1967-1; 안병찬, 1967 「서곡산성 답사보고」 『고고민속』 1967-2; 김인철, 1994 「온정리 고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3; 남일룡, 1994 「학성산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3.

통된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철원 일대에서 조사된 성들 중 상당수는 시대적 편년도 불분명하다. 고구려와 신라의 정확한 활용시기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문헌에서 확인하였듯, 이 일대를 중심으로 국경의 변동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진흥왕대 신라의 동북면은 멀리 함경남도 함흥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강원도 고성 일대를 중심으로 편군단의 위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이 일대는 신라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주된 전투지역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부와 동북부는 협준한 산악지형 탓에 군사적 중요성은 덜 한 점이 있다. 하지만 원산-문천-인홍-양덕-성천-강동-평양으로 이어지는 길은 있으며 이 길은 고려시대 역이 설치된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유사시에는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원산-삼방-세포-평강-철원-연천을 거쳐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나올 수 있다.

철원은 경기도 북부와 영서지방을 거쳐 소백산맥으로 진출하는 중부내륙 방면의 교통로에 자리한 전략적 요충일 뿐<sup>81)</sup> 아니라 동해안 일대로 진출하는 중간 교두보이기도 하다. 철원 일대가 장악되지 않을 경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공격로를 잃을 수도 있으며 도리어 중부내륙이나 동해안을 따라 고구려가 곧장 공격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철원 일대를 장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진평왕도 철원 일대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고석정에 신라비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문집에 실린 철원 고석정 신라비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비의 상태와 행방을 검토하고 건립 주체와 건

80) 백종오, 2005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 277면.

81) 서영일, 2000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고구려연구』 10, 495-497면.

립 시기 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신라의 철원지역 진출이 갖는 의미를 시대적 상황속에서 살펴보았다.

철원 고석정 신라비는 1589년 무렵까지 글자는 판독하기 어려웠지만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후 비는 훼손되었으며 1620~1626년 사이 그 행방마저 알 수 없게 되었다.

비를 세운 주체에 대해서는 구사맹이 비문 중 일부를 신라왕으로 판독하였으며 진평왕이 노닐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비의 대략적인 크기나 재질, 위치가 진홍왕 순수비와 다른 점,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묘사된 진평왕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나 일화 등이 세상에 전해오는 내용과 통하는 면이 있어 진평왕이 세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진평왕대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염두에 두며 살펴본 결과, 건립 시기는 598년부터 614년 사이의 어느 시점인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철원 일대는 고구려군의 신라내륙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평강-세포-삼방-원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진출로상에 있기 도 하다. 또한 한성에서 평양으로 진군하는 노선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진평왕도 철원 일대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며 고석정에 신라비를 세웠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철원 고석정 신라비, 진평왕, 문집, 고구려, 신라

투고일(2018. 7. 23), 심사시작일(2018. 8. 9), 심사완료일(2018. 8. 21)

### 〈Abstract〉

## Cheorwon Kosuk pavilion Silla Monument and The Cheorwon advance of Silla

Kim Jin Han \*

This paper examined the condition of Silla monument and it's whereabouts as well as the erector and building time focused on records on the collected works. Besides I checked the meaning that Silla advanced Cheorwon in the time.

I concluded that the monument was built by King Jinpyeong from 598 to 614 on investigation Koguryo and Silla relations. Cheorwon was not only an important geostrategic location on the east coast road that stretch from Pyeonggang to Wonsan that runs along the Churgaryeong Rift Valley but the route from Hanseong to Pyongyang. King Jinpyeong built the monument how important that fact is.

The monument has relatively intact condition stayed to 1589 year. But The signature on it is hard to make out. Thereafter the monument was damaged. And it was lost from 1620 to 1626.

**Key Words :** Cheorwon Kosuk pavilion Silla Monument, King Jinpyeong,  
The collected works, Koguryo, Silla

---

\* Lecturer, Schoo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